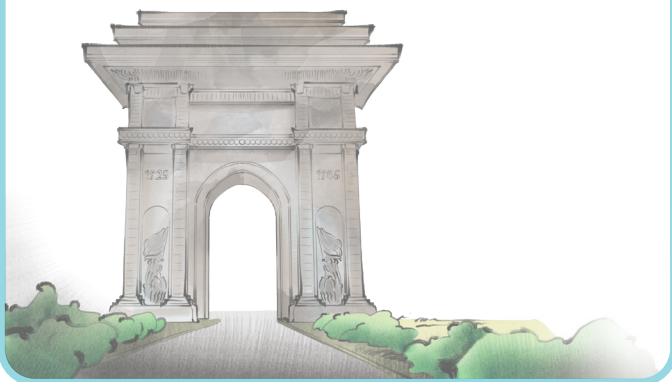


평양취재기 - 사람이 살고 있었네

KBS

한성운 기자



조선중앙텔레비 관계자들과 함께

“담배 연기의 무게는 얼마일까?”

웨인 왕 감독의 영화 ‘스모크’에는 담배 연기의 무게를 재는 방법이 나온다.

먼저 안 피운 담배의 무게를 잰 뒤, 담뱃재를 저울에 던 다음, 담배꽂초와 함께 무게를 측정한다. 안 피운 담배의 무게에서 담뱃재와 꽂초의 무게를 뺀 차이가 바로 담배 연기의 무게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별 의미 없이 지나친 것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생각하면 처음엔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018년 8월, 평양국제유소년축구대회 취재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평양에서 서울까지의 라이브 뉴스 방송이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은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과거처럼 북측의 금전적인 요구가 있을 거라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마치 담배 연기의 무게를 재는 것처럼 모든 것이 막연한 상황이었다.

KBS 평양 취재진은 평양에 진출해 있는 유일한 서방 언론사인 ‘APTN’을 떠올렸다. AP 홈페이지를 통해 김일성광장과 양각도호텔에 송출 장소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평양-서울 뉴스 생방송이 기술적으로

안 될 이유가 없었지만 AP가 우리의 제안을 굳이 받아들일 이유도 없었다. 모든 것이 미지수였지만 ‘어쩌면 평양 생방송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희망 속에 평양행을 준비했다.

유소년 축구 취재진은 정부 행사가 아닌 민간 행사로는 사상 처음으로 육로를 통해 방북 길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모습은 우리의 시골 풍경과 별 차이가 없었다.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통해 평양으로 향하는 도중 ‘동굴’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다. ‘혹시 고속도로 중간에 동굴을 통과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잠시 후 ‘동굴’은 우리가 말하는 동굴이 아닌 ‘터널’을 뜻하는 말임을 알게 되었다.

강렬한 인상을 남긴 ‘동굴’이란 단어를 통해서, 9박 10일간의 방북 기간 도중 남과 북의 언어 차이에 대해 최대한 취재하고 싶었다. 나의 전문 분야인 스포츠는 물론이고 북측 사람들이 쓰는 표현에 대해 정확한 실상을 체험하기 위해,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해 알아보고 싶었다. 황석영 씨가 쓴 북한 방북기 제목인 ‘사람이 살고 있었네’처럼, 지상낙원도 생지옥



북한의 유럽축구 마니아 김연이 씨

도 아닌, 북측 동포들의 생활상을 몸으로 부딪쳐서 알아보려고 다짐했다.

평양에 도착해서 첫 식사는 뷔페식이었는데, ‘닭알겹빵’, ‘단줄임’, ‘꼴바싸’ 등의 메뉴에 후식으로 ‘신젓’과 ‘포도단물’ 등이 제공되었다. ‘닭알겹빵’은 ‘에그샌드위치’, ‘단줄임’은 ‘잼’을 의미하며 ‘꼴바싸’는 러시아어에서 유래한 ‘소시지’를 뜻하는 단어였다. ‘신젓’은 발효유제품, ‘포도단물’은 포도주스였다. ‘포도단물’을 통해 과연 북에서도 ‘커피’를 마시는지 궁금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 대학가에선 ‘커피’와 ‘콜라’를 미국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긴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숙소인 양각도호텔 로비에는 커피와 각종 차를 판매하는 곳이 있다. 북측 커피에 대한 호기심으로 메뉴판을 보니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커피가 판매되고 있었다. ‘카푸치노’, ‘모카 커피’ 같은 보통 커피뿐 아니라 ‘원나 커피’라는 이름으로 우리 식의 ‘비엔나 커피’가 인기리에 팔리고 있었다. ‘프랑스 커피’와 ‘오스트랄리아 커피’, ‘로마 커피’ 등 우리에게 낯선 이름의 커피까지 있어 놀라웠다. 프랑스 커피는 크림 위에 초콜릿을 살짝 올린 것을 북한 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코코아슬커피’, ‘떼길라슬커피’, ‘브란디커피’, ‘포도슬커피’ ‘오렌지슬커피’ 등 술이 들어간 다양한 커피를 판매하고 있어 흥미로웠다.

유소년 축구팀을 취재하면서, 북측의 안내원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가벼운 농담부터 때로는 다소 민감한 정치적 이야기까지 함께 하면서 친밀감을 느낀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이를 물어보게 되었고, 내가 두 살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동행한 카메라 기자가 “한성운 씨가

보기보다 동안이죠?”라고 물으니 북측 안내원은 “그런데 동안이 뭘니까?”라고 되물었다. 북에서는 그냥 어려 보인다는 말을 사용하지 ‘동안’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고 한다.

동안을 모른다는 말을 듣자마자 인터넷에서 본 어떤 단어가 떠올라 곧바로 질문을 던졌다.

“북에서는 여자들이 신는 긴 양말을 하루살이 양말이라고 부른다면가요?”

그러자 북측 안내원은 호탕하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도대체 그런 말을 어디서 들었습니까?”라고 말하며 파안대소한다.

“우리는 일회성 양말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데, 사실 스타킹이라는 말도 자주 쓰지는 않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남북 간에 다른 표현이 많지만, 다른 민족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북에서도 여러 스포츠 팬들을 만날 수 있었다. 양각도호텔 서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북에서는 생소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야구에 대해 생각보다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었고, 남측 여자 축구팀의 안내원은 유럽 축구는 물론, 피겨스케이팅 등 각종 스포츠에 해박한 여성이

었다. 그녀는 북한 여자 축구 선수들에 대해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갖춘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지소연 선수가 지메시라는 별명으로 불린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 또 유럽 축구 선수인 가레스 베일의 열혈팬이었는데, 북한에서 메시나 호날두가 아닌 가레스 베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게 좀처럼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스포츠 용어는 경기 종목부터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북에서 최고 인기 스포츠는 바로 ‘룽구’이며 야외에서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은 ‘바드민톤’이고 테니스란 말 대신 ‘정구’를 공식 용어로 사용

한다. 역도 대신 ‘역기’로 표현하며, 북에서 가장 인기 높은 동계 스포츠는 피겨스케이팅 대신 ‘휘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980년대까지는 ‘예술빙상’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휘거’라는 용어가 정착되었다. 리듬체조는 ‘예술체조’라고 부른다.

종목 이름은 큰 차이가 없지만 세부적인 용어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리듬체조의 세부 종목은 리본과 곤봉, 후프와 공, 줄인데, 북에서는 댕기와 곤봉, 룬과 공, 뽕줄이라고 표현한다. 북측 잡지에 나온 피겨스케이팅 기사 중 ‘조약’이라는 단어가 나와 안내원에게 물었더니, 사실

샌드위치를 뜻하는 닭알겔빵



양각도호텔 커피숍에서 파는 북한 커피

는 ‘깎아치기’라는 말을 사용하며 탁구나 테니스, 배드민턴에서의 서브는 ‘쳐넣기’라는 다소 공격적인 말을 구사한다. 농구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덩크슛을 ‘꽃아넣기’라 부르고, 자유투는 ‘별넣기’, 트래블링은 ‘견기 위반’으로 부른다. 테니스의 스매싱을 ‘직접치기’, 발리를 ‘뜨자치기’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 역도의 인상을 ‘끌어올리기’라 부르고 용상은 ‘추켜올리기’로 표현한다. 축구에서 개인기를 통해 상대 수비를 제치는 건 ‘빼몰기’라는 말을 쓴다는 걸 평양 현지 취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잘 모르겠다며 휴대전화 앱에 깔린 ‘조선어사전’을 통해 검색해 답변해주었다. 피겨스케이팅의 점프를 북에서는 ‘조약’이라고 하는데, 피겨뿐 아니라 농구의 점프슛을 ‘조약투사’라 부르고, 배구에서 세터가 점프 토스하는 것은 ‘조약공 련락’이라 표현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영어 대신 한글을 쓰는 것뿐 아니라 북에서는 체육 용어도 한자 대신 순우리말을 쓰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탁구의 드라이브는 ‘걸어치기’, 커트

평양에서의 유소년 축구 취재 및 북측 사람들과 만나면서 위성 생방송을 준비했다. 우여곡절 끝에 9시 뉴스 2시간 전에야 뉴스 생방송 연결이 확정되었다. 방송 장소에서 AP 직원들의 협조를 받으며 방송을 준비했다. AP에 고용된 평양 사람들은 마이크와 이어폰 등 세세한 부분까지 KBS 취재진을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이였다. 카메라와 조명 상태를 점검한 뒤, 마침내 위성이 열리자 서울 현지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있는 곳은 평양, 앵커의 목소리는 서울, 비현실적인 세계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유소년축구대회가 열린 김일성경기장

한 번의 여행 연습 후 본방송에 들어갔다. 22년간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 수많은 생방송을 경험했지만 이 정도로 떨린 것은 처음이었다. 평양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이 어깨를 짓누르는 느낌이었다. 6분간의 방송 내용을 모두 전한 뒤 “지금까지 평양에서 전해드렸습니다”라고 말하고 방송을 마치자 잠시 후 박수가 터져나왔다. 12명의 KBS 취재팀과 중계팀이 서로 힘을 합쳐 만들어낸 평양에서의 작은 기적이었다.

평양에서 서울로 복귀하는 날, 북에

서 만난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비록 9박 10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시 만나요’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잘 가시오 다시 만나요,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를 이야기하며 두 손을 맞잡았다.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굳게 잡은 손으로 느껴지는 우리들만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꼭 다시 만납시다”라는 말이 터져나왔다.

영화 ‘스모크’의 담배 가게 주인은 매일 오전 같은 시간에 같은 배경으로 사진

을 찍는다. 10년 넘게 찍은 사진은 수천 장을 넘는다. 사람들은 왜 같은 사진을 매일 찍느냐고 하지만, 사실은 같은 사진이 아니다. 무심코 찍은 사진의 뒷 배경에는 수많은 사람의 애환이 담긴 이야기가 실려 있다. ‘스모크’는 이처럼 소소하지만 여운이 남는 삶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KBS의 평양 생방송은 10년 만에 이루어진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한 두 번의 방송으로 남북 방송 교류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순 없다. 영화 ‘스모크’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찍은 사진이 모였을 때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듯이,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 남북 간의 차이를 좁혀나갈 때 방송 교류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국제축구연맹은 2023년 여자 월드컵을 남북한이 공동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FIFA가 남북한 공동 개최를 강하게 원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남북한이 여자 월드컵을 함께할 가능성이 높다. 그때는 평양의 여자 축구 마니아 ‘김연이’ 씨를 객원 해설위원으로 추천하고 싶다. 어쩌면 그녀는 남북의 여자 축구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해박한 여성일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나는 자랑스럽게 외칠 것이다. 그녀는 2018년 평양 유소년 축구 취재라는 뜻깊은 과정을 통해 내가 직접 발굴한 사람이라고. 🇰🇵

